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6. 1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러시아, 파리올림픽 관련 테러 등 공포 조장 의혹
 - 6.4 언론은 러시아가 중립국 자격으로만 파리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, 올림픽 겨냥 테러 등 공포를 조장하는 허위영상 유포에 앞장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일각에서는 올림픽이 임박해 오면, 가짜뉴스 등이 더욱 활개칠 것이라고 부언
- 덴마크 총리, 선거 유세 도중 코펜하겐 광장에서 피습
 - 6.8 언론은 덴마크 「메테 프레데릭센」 총리가 유럽의회 선거 유세 도중 코펜하겐 광장에서 피습을 당했으며, 최근 유럽에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긴장감 고조 우려
 - ※ 슬로바키아 총리 총기 피격 사건(4.15), 독일 시의원 후보 흉기 피습 사건(6.4) 등

미주

- YOUTUBE, 총기 동영상 정책 강화
 - 6.10 언론은 유튜브가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콘텐츠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제 총기 제작, 총기 훈련 영상 등 장비와 관련된 영상을 18세 이상으로 사용자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※ 유튜브측은 정기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외부전문가와 상의 예정

중동

- 레바논 美 대사관, 총격으로 현지 경비원 1명 중상
 - 6.6 언론은 레바논 美 대사관 앞에서 시리아 국적 남성에게 의해 총격이 벌어져 현지인 경비원이 크게 다쳤으며, 범인이 입은 조끼에 ISIS (이슬람국가) 휘장이 있어 배후로 의심된다고 보도
 - ※ 외신은 레바논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“가자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.”라고 진술했다고 보도

○ 이스라엘, 가자지구에서 인질 4명 구출

- 6.9 언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부에서 「여름씨앗들」로 명명한 인질구출 작전을 수행해 인질 4명을 구출하였으며, 해당 작전에 따른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23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보도
- ※ 「조 바이든」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인질 4명의 귀환을 축하한 반면, EU는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는 등 서방 진영에서도 상반된 입장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韓-아프리카, 정상회의에서 협력 강화 등 공동선언

- 6.4 언론은 韓-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를 위한 △대테러 노력 △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 필요성 등 25개 항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보도
- ※ 교역 및 투자, 인프라, 과학기술 등 미래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

○ 파키스탄, 편자브 전역에서 테러리스트 44명 체포

- 6.4 언론은 파키스탄 편자브 전역에서 파키스탄 대테러부가 정보 기반의 작전을 수행해 테러 용의자 44명을 체포하였고 현장에서 다량의 폭발물, 자살조끼, 수류탄, 기폭장치 등을 압수조치 했다고 보도
- ※ 同 부서는 지난 5월 2,738건의 수색 작업을 통해 673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 무장단체, 카치나州 마을에서 26명 살해·수십명 납치

- 6.11 언론은 나이지리아 무장단체가 카치나州 칸카라지역 기단 보카 마을을 공격해 경찰 4명을 포함해 26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납치 했으며, 납치된 주민 수십 명 中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보도
- ※ 나이지리아 중북부에서는 ‘반디트’라고 불리는 현지 무장단체의 몸값을 노린 민간인 공격이나 납치가 빈발

아일랜드 임시 공화군(PIRA), 맨체스터 폭탄테러

- '96.6.15 영국 맨체스터 번화가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12명이 다쳤으며, 약 3조 원('24년 기준 환산)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



- PIRA 조직원 2명은 1,500kg의 폭약을 실은 트럭을 시내 중심부에 주차한 후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약 한 시간 뒤 폭파 실행을 예고
- 당시 맨체스터에는 유로 '96 축구 대회로 약 8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으나, 경찰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 사망자 발생 全無
 - * 폭탄은 예정시각에 폭발해 15m 분화구와 300m 버섯구름, 건물파편 폭풍 생성

- 사건 직후 英 총리 「존 메이저」가 “역겹고 야만적인 테러”라며 비난 성명 발표에 이어서 美 대통령 「빌 클린턴」도 규탄 성명을 발표

- 한편, 사건 5일 후 PIRA는 사건 배후를 자처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,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

⇒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테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로, 유사시 우리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사사례 지속 분석 필요

< 아일랜드 임시 공화군(PIRA) >
(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)

- (목표/이념) 북아일랜드에서의 영국군 철수 및 통일 아일랜드 건설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영국, 미국, 아일랜드 등
- (활동기간) '69년 ~ '05.7.28(무장해제 선언), '05.10월 무장해제위원회 무장해제 확인
- (연계세력) 아일랜드 민족해방군(INLA), 신 페인(Sinn Féin)
- (활동지역) 아일랜드, 영국, 독일, 네덜란드 등
- (후신단체) PIRA 조직원 중 협정에 반발하며 무장해제를 거부한 소수 과격파는 C(Continuity)-IRA, R(Real)-IRA 등의 이름으로 활동 지속 중